

대구시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영양·가사·동행 서비스 1개월 집중 지원, 1인당 최대 84만 8천 원 규모



대구광역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

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이며, 올해는 총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

사)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지원' ▲식사 준비부터 청소, 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관공사,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1인당 1개월간 최대 84만 8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영양지원 월 10만 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오는 3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국장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경남, 가짜석유 불법유통업소 6곳 적발

골재채취장 및 폐기물처리 현장 가짜석유 판매 등 위반행위 9건 확인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 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 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경유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판매한 연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로 확인됐다.

또한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의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연료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어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

했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수평거래 즉,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협회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법·범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룡 기자

느린학습자 소외없도록 5개년 기본계획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경제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10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는 앞서 2023년 「부산시 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업하여 경제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진로탐색 및 사회적 향상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총예산 3억 3천8백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

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견, 가족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할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파악'으로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이다.

조기 발굴 및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지능검사 이전 단계에서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 기구의 개발·보급 ▲진단검사비 지원 ▲경제선지능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 절차를 마련한다.

두 번째 전략은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학령기 성장 지원을 위해 ▲포괄적 형성,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학습, 정서 지지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 확보 ▲관계기관 등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이영우 기자

바이오산업의 게임체인저 바이오반도체 육성!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융합산업인 '바이오반도체' 육성에 본격 나선다.

경상북도는 18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포스텍)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K-BIGHEART, 국가연구소(NRL 2.0))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소한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가연구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으며, 경북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 유일의 선정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단 4곳만 선정된 대형 국제 프로젝트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글로벌 수준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연구소는 향후 10년간 총 1,130억 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역 R&D 사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경북의 바이오 연구 역량을

경북 10년간 1,130억 투입, 지역 유일 '국가연구소(NRL 2.0)' 공모 선정



한 단계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세계적 석학인 루크 리(Luke P. Lee)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리 교수는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성균관대 양자생명물리과학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5명의 연구진과 함께 융합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생체의학 IC(통합회로) 기반 정밀의학' 실현이다.

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 바이오 분야에 접목한 이른바 '바이오반도체' 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IC ▲장기·오가노이드 IC ▲세포·양자 생체의학 IC 등 3대 분야의 연구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자 과학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미래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구학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

실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흥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지·산·학·연 협력 기반의 바이오 융합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포항을 글로벌 헬스케어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포항이 글로벌 헬스케어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클리퍼 레이스 통영 기항...선수단 공식 환영식 열려

통영의 현대와 전통, 그리고 초록빛 축제가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7일 도남관광지 일원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클리퍼 레이스 선수단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식은 한국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로 시작됐다.

힘찬 장단과 역동적인 리듬은 현장을 찾은 관광객과 선수단 가족들에게 한국 고유의 음악과 에너지를 전하며, 통영의 따뜻한 환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환영식에서는 통영시장이 직접 각 요트를 찾아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통영의 마스코트 '둥백이' 인형을 전달하며 선수단과 친근하게 교류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또한 3월 17일은 성 패트리 데이로, 아일랜드의 대표적 축일이다. 이를 기념해 통영시는 초록색 포장의 한국 과거와 세일클러버 키링을 준비해 각 요트 선수들에게 전달하며, 행운과 환영의 의미를 더했다.

PORT WEEK 기간 동안 도남관광지 일원에서는 해양과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

쳐지고 있다. 특히 해양 F&B 페스티벌 'PORT TABLE'은 통영의 신선한 해산물과 로컬 브랜드, 셰프 협업 메뉴 등을 선보이며, '바다 위 식탁'이라는 콘셉트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해 예정이다.

요트들이 정박한 도남항 일대에는 약 21m 길이의 통일 규격 요트 10척에 조명이 설치되어 밤마다 화려한 해상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빛으로 이어진 요트들은 통영의 밤바다 위에서 장관을 이루며,

이번 기항지 행사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야간 경관은 오는 3월 21일 밤까지 도남항 일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3월 22일 오전 10시에는 모든 요트가 돛을 펼치고 통영 바다를 가로지르는 '패레이드 오브 세일(Parade of Sail)'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한데 모여 출항하는 이 장면은 통영의 바다와 어우러진 또 하나의 압도적인 장관으로, 이번 PORT WEEK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성룡 기자

365일 24시간, 울산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 개소했다

4월 29일까지 단계별 시범...4월 30일부터 정상 운영, 돌봄 공백 해소



울산시가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아이돌봄시설을 북구에 추가로 마련했다. 울산시는 18일 '울산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줄자르기(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시설 순회(러닝)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남구 신정동에 처음 개소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는 지난해 6,700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등 공공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증가에 대응해 왔다.

이번 송정센터 개소로 북구지역까지 공공 돌봄 기반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는 3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영아·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어 4월 3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특수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당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아동 1인당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월 최대 48시간만 이용 가능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시립아이돌봄센터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호근 기자

수성구 '뚜비' 이월드와 손잡고 지역경제 견인 나선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7일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DUBBI)'의 문화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해 대구 대표 테마파크 이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 캐릭터를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캐릭터 산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협력 사업으로, 지자체 캐릭터가 지역 관광 시설과 협력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뚜비 굿즈 이월드 스토어 입점 ▲뚜비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 ▲이월드 내 캐릭터 공연 퍼포먼스 및 포토존 운영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뚜비 캐릭터 체험 콘텐츠와 기념상품을 선보여 캐릭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성구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성구 캐릭터 '뚜비'는 전국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로, 다양한 굿즈와 문화콘텐츠로 확장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동진 대표이사는 "수성구의 대표 캐릭터 '뚜비'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월드는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재 놓이공원 시설뿐만 아니라 대구 상징 기념품, 대구 10미

대표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 캐릭터가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캐릭터 '뚜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